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 몽골 최종 세미나 성료



<사진설명 : 한국발명진흥회 교육연구본부 김운선 본부장(앞줄에서 왼쪽에서 7번째)과 몽골 농업연구소의 바이슈크 누브 소장(앞줄 왼쪽에서 6번째) 등 주요 관계자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발명진흥회(회장 황철주)는 2024년도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의 몽골 최종 세미나를 지난 14일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최종 세미나는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 소개, 개발·보급한 적정기술 교육 및 시연, 브랜드 전략 및 패키지 디자인 전시 등을 통해 몽골 농림부, 대사관을 비롯해 수원기관과 현지 농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IP Sharing Project)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공적개발원조사업(ODA)으로 개발도상국에 국내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적합한 적정기술을 개발해 주고, 이를 활용한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브랜드 개발을 지원한다.

올해는 몽골, 필리핀, 도미니카공화국 등 8개국을 대상으로 12개의 사업을 진행했으며 몽골의 경우 몽골 국가 전략인 식량 안보와 관련한 ‘지식재산 활용 농업기술 지원’ 과 ‘적정기술 및 브랜드 개발 지원’ 을 추진했다.

‘지식재산 활용 농업기술 지원’ 은 농촌진흥청(KOPIA)과 협업하여 총 3개년을 지원하며 1차년도인 올해는 국내 특허정보를 활용해 개발한 양과 수확기, 옥수수 건조기 등의 농기계를 개발·보급했다. ‘적정기술 및 브랜드 개발 지원’ 은 몽골의 혹독한 기후에서도 신선한 과채류를 재배할 수 있도록 북방형 스마트팜을 구축하고 재배작물의 브랜드 개발을 완료했다.

수확기와 건조기를 지원받은 몽골 농업연구소(IPAS)의 바야수크 누브 소장은 “1시간 걸리던 양과 수확 작업이 8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몽골의 양과 생산성과 작업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김시형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은 국내 특허정보를 활용해 보급한 적정기술이 개도국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앞으로도 지식재산 나눔사업을 통해 국내 특허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